

“통합 성공 견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

각 분야 전문가 14명 등 17명 구성
안전 심의·조정 통합 실행방안 마련
市·道·행안부, 성공 출범 업무협약



지난 8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용규 광주시의회 의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광주시 제공>

전남도는 광주시,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준비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공식 출범한 준비위원회는 전남도와 광주시,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행정·지역 대학·경제산업·농수산 등 각 분야 전문가 14명과 당연직 위원 3

명(전남도 행정부지사·광주시 행정부시장·행안부 자치혁신실장)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전남 측 위촉 박민서 위원과 광주 측 위촉 정영팔 위원이,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추천 오세범 위원이 맡아 준비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준비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활동하며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과 시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안전 등을 심의·조정한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준비위원회

운영 방안, 준비위원회 운영 세칙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남과 광주를 순회하며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통합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함께 진행된 전남도·광주시·행정안전부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강기정 시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의장 직무대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각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양시도의 통합과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7월1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사 속으로 남고 부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며 "광주시의 마지막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갖고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인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광주 시·도민과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대한민국 최초 광역통합을 실현했다"며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와 함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이정선 교육감 후보, '수능만점펀드' 공약

진학컨설팅 확대·원터스쿨 등 운영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수능만점펀드' 공약을 발표했다.

이정선 예비후보는 "지난해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광주의 진학 노하우를 전남까지 확산시키겠다"며 "'수능만점펀드'를 통해 도시와 지방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능만점펀드'는 저소득층 진학 지원과 수능 만점 장학 프로젝트, AI기반 진학 컨설팅 확대, 전남광주형 원터스쿨 운영, 공교육 눈높이 점 지원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응원 플랫폼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학부모들 사이에서



는 강남처럼 사교육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도 공교육만으로 명문대 진학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에서는 이미 '시민 참여형 펀드' 모델이 운영된 바 있다"며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펀드 목표액 350억원이 100분 만에 마감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정치 펀드가 시민 참여의 상징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육 펀드가 가능할 수 있다"며 "전남광주가 '공교육 성공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자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옥기자

“경제 대도약...더 큰 전남광주 만들겠다”

민형배 '전남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

주은기 삼성전자 고문, 경제고문 합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0일 광주 민심캠프 사무소에서 '전남광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서삼석·권항엽·김문수·박균택·안도걸·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계원·조인철 의원 등 전남·광주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노동·산업·청년·농어민·문화예술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민형배는 김대중의 민주주의 정신, 노무현의 국민통합 정신, 문재인 의 한반도 평화 정신, 이재명의 실사구시 정신을 한 몸에 갖고 있는 통합특별시장의 적임자"라며 "전남·광주 통합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후보는 "전남·광주의 성공이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몰려 들고 AI·반도체·미래차·데이터 산업이 넘쳐나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경제 대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 후보는 "시정의 중요한 결정은 특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뜻이 예산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려 민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시민권정부를 세우겠다"며 "가장 앞에서 뛰고, 가장 낮은 곳에서 듣고, 가장 빠르게 움직여 '압도적 성장, 더 큰 전남·광주'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출범한 전남광주 대전환 선대위는 시민주권·미래도약·원팀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경제특별고문으로 주은기 삼성전자 고문(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위촉했다. 주 고문은 AI 등 미래 산업을 지역 산업 생태계에 안착시킬 핵심

조력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후원회장에는 이광재 민주당 경기 하남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정성택 전 전남대 총장, 양도호 투계터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양부남 광주시장 위원장, 주철현 의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맡으며 상임선대위원장에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변은진기자

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인권행정체계 모색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인권행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권기구 추진체계 모색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집담회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주관했으며 통합특별시 인권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집담회에는 광주시 전현직 인권옴부즈맨과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전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와 도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국가인권

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집담회는 전문가 6인의 발제를 통해 통합 이후 인권보장체계 구축 방향과 인권기구 모델을 분석하고 통합특별시 인권기구의 운영 체계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행정통합 이후 인권보장체계 구축 방안,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국가인권기구 모델로 본 지방인권기구를 발표했다. /변은진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꼭 기억해야 할 자전거 안전 수칙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자전거 타기!
기본 수칙만 알아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바퀴로 힘차게 달리는 안전한 생활, 우리 함께해요!

1 안전한 자전거 주행 기본 수칙

- 1 자전거는 한 줄로!
- 2 우회전 차량에 주의!
- 3 횡단보도는 두 발로!

2 교차로 좌회전 주행 방법

- 차량 신호로 좌회전 불가
- 꼭 기억하세요! 2번의 직진을 통한 좌회전 방법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